

숏폼의 춤, 규범과 권력 사이의 자율성

-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중심으로 -

김현희*

I. 서론

II. 수행성 그리고 몸

III. 숏폼의 춤과 수행성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2024년 12월의 탄핵 집회가 8년 전과 다르다는 평가는 10대에서 30대로 일컬어지는 MZ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와 K팝에 맞추어 신나게 춤추는 모습으로 묘사된다(KBS뉴스, 2024). 2016년의 촛불집회에서 이루어진 절제된 행진과 2024년 집회에서 추어진 춤의 사이에는 춤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 사료된다. 엄숙한 것으로 여겨지던 정치의 장에서 대중의 춤은 진지함이 상쇄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집회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대중 춤의 오랜 사회적 인식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대중의 춤 실천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지난 대중춤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1950년대 대중춤에 대한 인식을 대변하는 영화 「자유부인」(1956)에서 춤은 탈선의 경로이자 밀실 문화로 존재한다(변혁, 정의숙, 2009, p. 79). 또한 “1960, 70년대 정부의 통제와 억압인 댄스홀의 폐쇄조치나 춤추는 자의 법의 심판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춤추는 몸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능동적 발화는 끊임없이 사회 속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체현하고 있었다(양은정, 2013, p. 133).”의 언급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의 대중의 춤이 규범에 반하는 대상으로 간주되어 음지의 공간에 위치해왔음을 의미한다. “개화기부터 1980년대까지 댄스홀이 풍기문란과 동시에 저항과 투쟁의 장소였다면 1990년대부터 밤 문화의 메카 댄스클럽은 사회적 터부의 모멘텀(momentum)이 약화되었다(황희정, 2013, p. 139).”는 댄스클럽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희석되며 춤추는 공간이 다양화되었다는 시선으로 사회적 인식과 대중춤이 추어진 공간의 상관관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관계성은 오늘날 새로운 공간에서 활발히 추어지는 대중의 춤에 주목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오늘날 대중의 춤 실천이 지니는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다수의 몸을 전유하는 케이팝(K-pop)의 춤 실천이 모여드는 숏폼 동영상 콘텐츠(short-form video contents)의 춤 수행에 주목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박사과정 수료, redpoint84@naver.com

한다. 케이팝 댄스를 커버하는 행위를 기반으로 숏폼의 챌린지와 결합된 재미있는 놀이 문화는 이미 대중의 일상생활에 스며있다(김주희, 2024, p. 30). 춤을 따라 추는 챌린지 문화를 대표하는 플랫폼인 틱톡(Tik Tok)은 2020년을 기점으로 다운로드 수와 활성 사용자가 급증하였고, 같은 시기 유튜브(YouTube)의 쇼츠(Shorts)와 인스타그램(Instagram)의 릴스(Reels) 서비스가 출시되며 숏폼 플랫폼의 생태계가 확장되었다. 틱톡에서도 가장 활발히 공유되는 분야는 춤으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상호작용을 장려한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Li, Guan, Hamond & Berrey, 2021, p. 268). 이러한 춤 실천은 플랫폼의 경계를 넘나들며 1분 이내의 짧은 영상 안에서 전유되는 보편적 현상을 보이므로, ‘숏폼의 춤’이라는 개념적 틀 안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숏폼의 춤은 유희와 놀이로 전파되어 반복되며 안무를 창작하는 행위보다 춤추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지적되었다(김정은, 신현군, 2022, p. 227). 숏폼에서 추어지는 춤은 특정 안무를 체득한 자신을 소셜 네트워크 공간에 공개하므로 모여든(assemble) 실천의 형태는 디지털 공간에서 드러난다.

디지털 미디어의 기술이 지닌 양방향적이고 조작이 가능한 실존적 특징과(이지선, 2006, p. 90), 디지털 퍼포먼스에서 춤추는 몸의 가상적이고 물리적인 이중적 현존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생성된다는 사실은 연구된 바 있다(한석진, 2017, p. 159). 본 연구는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춤을 살아있는 실천으로서 탐색하기 위하여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을 통해 숏폼의 춤을 바라볼 것이다. 그녀의 저서 『젠더 트러블』(1990)은 젠더를 본질적인 속성이 아닌 사회적 행동으로 바라보고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논의한다. 이는 기존의 성별과 정체성을 재고하도록 하여 젠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기여했다. 버틀러의 수행성은 춤추는 몸의 담론으로 들어와 행위자와 수용자의 이분법적 경계를 해체하여 실천을 강조하고(김재리, 2019a), 신체의 수행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여 취약한 신체를 정치적 주체로(김재리, 2019b), 또한 신체적 움직임을 새로운 정체성을 탐구하는 방식(김민지, 차수정, 2024)으로 바라보도록 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무대 위와 무용 작품의 영역을 벗어난 수행성을 살펴보는 것은 춤의 실천적 면모를 강조하고 그 의미를 확장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숏폼의 춤 현상에서 드러나는 대중의 수행성을 단순한 유행이나 오락적 행위 혹은 안무를 모방하는 집단의 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각 주체의 수행으로 바라보아 대중의 춤 실천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한 개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젠더 수행성을 시작으로 공공 공간에서의 집회 그리고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 확장되는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살펴본다. 이후 숏폼을 기반으로 춤추는 대중의 수행성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에서 국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다섯 개의 사례를 각 연도를 대표하는 숏폼의 춤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제한점은 보다 광범위한 사례 수집과 분석을 통한 세밀한 변화 양상의 포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선별된 다섯 개의 사례가 드러내는 경향성은 향후 숏폼 기반 수행성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팬데믹이라는 사회문화적 전환점을 지나며 춤의 수행 양식이 변화되는 과정은 숏폼의 춤과 대중의 몸에 관한 담론을 확장하고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춤 문화에 대한 담론 형성에 학술적 토대가 될 것이다.

II. 수행성 그리고 몸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은 젠더 수행성을 출발 지점으로 하여 삶과 죽음, 돌봄과 연대의 정치로 그 사유의 외연을 확장해왔다. 특히나 수행성은 몸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취약함(vulnerability)의 대상을 확장하고 시대적인 흐름과 맞물려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버틀러의 이론을 초기의 젠더 논의를 시작으로 9.11테러 이후와 팬데믹의 시기로 나누어 그 변화를 살펴본다.

버틀러는 젠더를 안정적인 정체성이나 다양한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시간 속에서 불확실하게 구성되는 정체성이자 양식화된 행위를 반복하여 형성된 것이라 주장한다(Butler, 1988, p. 519). 그녀의 대표적 저서인 『젠더 트러블』(1990)에서도 젠더는 본질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닌 반복된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불안정한 것으로 논의된다. 반복적 수행과 인용을 통해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젠더의 자연스러운 이해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 것이다. 반복적인 실천인 젠더 수행성(gender performativity)은 주어진 선택지의 어떤 것을 수행하는 몸이자 이성애적 젠더 규범을 인용하고 수행하며 제도화되는 과정의 주체를 설명한다. 이때 몸은 권력관계와 규율 속에서 실천을 통해 물질화되는 문화적 구성물이 되어 적극적인 실천의 주체이자 매 순간 수행하는 움직임의 상태에 놓여 완결되지 않은 구성의 과정에 위치한다. 반복되는 실천의 틈에서 구성되는 불안정한 정체성은 전복 가능성을 지닌다. 또한 권력에 복종함을 통해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권력은 항상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주체화의 과정에는 저항의 가능성이 잠재한다(조주영, 2021, p. 165).

버틀러의 이론은 강제된 이분법적 젠더 수행을 벗어나는 존재의 불안정성(precarity)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며 쿼어 담론에 이론적 정당성과 정치적 힘을 제공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대상은 2001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으로 고려되어 특정 집단의 생존이 위협받는 전쟁의 상황과 맞물려 논의되기 시작한다. 어떠한 생명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 논하는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몸은 타자에 의해 규정되고 노출되어 사회적 배치에 놓이게 되고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조직화된 행동을 통해 작동되는 수행성이 고려된다. 이때 주체의 표현은 주체를 벗어나 타인에 의해 취해지고 변형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므로 다수의 수행은 개인의 몸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Butler, 1993, p. 29). 주체는 나의 수행으로 구성되지만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되게 하는 것은 외부의 규범과 규약이므로 주체는 타자에 의존하고 나를 벗어나는 탈아적(ec-static) 존재이다(조현준, 2017, p. 257). '나'의 반복적인 수행에서 전복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 취약성으로 나아가며 몸은 살아 있는 관계들의 얽힘이자 삶과 행동 그리고 환경적인 조건들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된다(Butler, 2020, p. 94).

개인이 취약함을 느낄 때 '우리'를 소환한다면 우리로서 등장하는 것이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 팬데믹의 환경에서는 어떠한 의미변화가 이루어진 것일까. 버틀러는 이 시기 현상학적 접근인 메를로-퐁티의 상호 엮임(entrelacement)에 집중하며 팬데믹이 우리를 관계적이고 상호적인 존재로 만들어 경계 지어진 온전한 자아의 일반적 감각이 전도되었다고 말한다(Butler, 2023, p. 26). 몸-주체가 타자와 세상과 경계를 짓지 않고 타인을 감각하고 동시에 감각되며 서로 엮이고 침투되는 존재라는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관점을 거쳐 몸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항상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거리 두기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타인을 감염시키는 가능성

을 염두에 둔 행동이므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타자를 받아들이는 존재로 확립시킨다(Butler, 2023, p. 96). 결국 몸으로서 우리는 취약하고, 침투성의 특징을 가진 몸을 가진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므로 인간은 상호의존성의 장소로 재고된다(Taylor, 2012, pp. 347-352). 때문에 팬데믹 시기에 몸은 서로의 생존 조건이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감각하고 재현하는 적극적인 실천의 주체이자 실존적으로 취약한 존재이다.

버틀리의 이론에서 수행성과 몸 그리고 취약성은 각각의 분리된 개념이 아닌 몸의 정치성과 윤리성을 소유하는 다층적 관점에서 상호작용한다. 몸은 수행을 통해 사회적 규범에서 구성되는 동시에 이를 벗어날 공간을 만들어내는 전복의 가능성을 지니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형성되는 탈아적 존재이다. 또한 몸은 자족적이거나 완결된 존재가 아닌 상호의존적 과정 안에서 타자에게 근본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취약한 존재이다. 이러한 공유된 취약함의 조건은 관계성에 기초하는 인간존재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숏폼의 춤은 공적인 장인 디지털 공간에 스스로 드러내는 취약한 몸을 통해 구성되며 춤을 공유하는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서 의미를 생성하는 수행적 과정에 놓여있다.

III. 숏폼의 춤과 수행성

숏폼의 춤을 타인과 연대하는 수행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기원은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활성화된 댄스 챌린지 문화에 있지만 가시화된 대중적 현상은 2020년 팬데믹의 시기와 맞물려 확산된 ‘아무노래 챌린지’가 대표적이다. 본 장에서는 이 챌린지를 숏폼의 춤에서 수행성의 의미가 발견되는 시작점으로 두고 팬데믹의 시기와 이후의 변화에 대하여 논한다. 팬데믹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의 제한이 인류의 몸에 가해지며 춤추는 몸에 적용되는 규범과 제약 역시 강화되고,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집단적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 팬데믹의 수행

확산된 숏폼의 춤을 바라보기에 앞서 모든 몸에 대한 취약성이 가시화되고 규범이 강화되었다는 팬데믹의 맥락은 중요하다. 2020년 3월 13일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은 가장 높은 단계의 감염병 위협의 수준을 의미하며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3T 전략을 강력한 봉쇄 정책의 모범 사례로 평가한다. 검사(testing), 추적(tracing), 격리 치료(treatment with isolation)로 알려진 한국의 대응은 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고립을 의미한다. 몸이 지닌 침투성과 상호의존성이 체감되는 상황에서 접촉으로 인한 감염과 극복하지 못한 질병에 대한 취약함을 인정하여 행해진 강력한 봉쇄이다. 고립된 일상의 공간에서 스스로의 동선과 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제어해야 하는 규범을 준수하며 숏폼의 수행은 타인과 교류하는 대안적 방식으로 확산된다.

가. 아무노래 챌린지

가수 지코(ZICO)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시작되어 틱톡으로 이어지며 플랫폼을 넘어서는 춤 현상인 ‘아무노래 챌린지’의 원본은 현재 틱톡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2020년 1월 12일 가수 화사와 함께한 영

상에서 지코는 정장을 입고 어색하지만 비장한 인사로 춤을 시작한다. 다음날은 가수 청하와 함께 춤을 추는 영상이 게시되고 연일 지속되는 타인과 함께 한 영상의 게시는 챌린지의 방식을 안내한다(TikTok, 2020). 틱톡의 특성에 맞게 상반신 위주로 구성된 춤은 아이돌 출신인 가수의 이력을 감안하면 몹시 절제된 춤이다. 특별한 기술적 훈련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일상적 동작인 걷기와 달리기 그리고 머리 넘기기 등은 정장과 대비되었듯이 그의 몸에서 수행됨으로써 장난스러운 놀이로 선보여진다. 유튜브를 통해 설명된 챌린지는 상체 위주의 동작, 세로 모드의 촬영, 에너지의 분배라는 간단한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이내 곧 마음껏 해석하여 자유로이 표현하는 제약 없는 방출을 권유한다(YouTube, 2020). 각자의 표현을 허용하는 느슨한 안무의 수행이 지닌 자유로움은 고립된 몸에게 부여된다.

또한 경직됨을 벗어난 즐거움과 장난스러움의 유희적인 태도는 몸을 제약하는 규범의 사이에서도 수행성을 증폭시킨다. 미디어 롱 샷(Medium Long Shot)의 구도는 개인을 가시화하고 절제된 쉬운 동작은 실천에 동력을 제공한다. 2020년 1월 31일 지코는 챌린지를 실천한 몇몇 사람들의 영상을 묶어 게시하며 감사를 표했다(TikTok, 2020). 영상에는 원본의 춤을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래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춤 동작을 변형하는 자유로운 수행들이 모여져있다. 타인을 초대하여 두 사람이 춤을 추는 제시된 형태를 벗어나 원전의 수행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인 영상들은 원본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수행력을 드러낸다. 이는 감시를 받는 물리적인 몸의 억압 속에서 안내된 편안한 동작과 느슨한 안무를 자유롭게 실천하는 주체가 타자에게 스스로를 드러내는 현상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주체는 춤의 실천을 통해 고립된 공간의 몸에서 타자와 관계 맺음의 몸으로 전환하고 유희적 수행은 원본을 변주하지만 규범을 넘어서지 않는 일상의 공간에 머문다. 단독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주체에게 강화된 취약함을 극복하려는 대안적 실천이자 능동적이고 유희적인 수행이다.

나. 헤이 마마 챌린지

‘헤이 마마 챌린지’는 엠넷(MNet)에서 2021년 하반기 방영된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통해 알려졌다. 소비자 행동 기반 콘텐츠 영향력 측정 모델인 콘텐츠 파워 인덱스(CPI)에서 7주 연속 1위에 오른 화제의 프로그램은 여성 댄스팀의 경쟁을 그려낸다. 2화에서 계급 미션 경연곡으로 리더 계급의 안무로 선택된 헤이 마마의 안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안무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이되어 자발적인 대중의 참여 현상으로 발전한 독특한 사례이다. 안무를 구성한 노제는 안무 창작미션에서 안무를 완성하지 못하여 비난받고, 실력보다 외모로 평가되는 스스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리더의 서사에 놓여있다. 안무를 빼앗으려는 전략적 실천에서 춤의 반복적 수행은 주체화 과정을 드러내고, 타자에게 채택된 안무는 창작자의 몸을 벗어나 특권적 위치를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2화는 리더들의 수행이 과열되는 와중 우열을 가릴 수 없어 다시 요청된 선발전에서 자신의 안무를 빼앗기지 않고 메인 댄서가 된 노제의 서사로 마무리된다. 이를 바라보는 팀원들의 “리더는 리더다.”, “진짜 너무 멋있다.”와 같은 반응 그리고 심사를 보는 이들의 “배우고 싶다.”는 발언은 리더들의 수행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Mnet, 2021).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는 각 팀의 리더들은 힘이 필요한 빠른 안무를 소화하는 수행능력으로 자신의 계급을 증명하며 스펙터클을 생성했다. 방송 이후 한 인터뷰에서 노제는 안무를 창작하며 가장 신경 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무를 만들었으니 까 내가 뿔 때 제일 멋있는 동작을 만들어야지 생각했다(엑스포츠뉴스, 2021).”고 밝힌다. 창작자가

지녔던 안무의 권력이 몸의 움직임이 자신이 유리한 구조에 정렬시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를 수행하는 타 리더들은 이를 자신의 방식으로 재의미화한다. 완전히 동일할 수 없는 이들의 수행이 틈새를 만들고 전복의 가능성을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안무는 몸의 규범이자 정체성의 산물이며 권력의 대상이자 권력이다. 이를 지켜본 시청자는 댄서들을 상대로 구성된 고난도의 안무를 수행하며 미디어 간의 경계를 허물고 스스로 새로운 수행 주체가 된다.

이전의 챌린지가 전형적인 숏폼의 프레임에 놓였던 것과 달리 몸의 전신을 드러내는 풀 샷(Full Shot)으로 자주 인용되는 챌린지는 고난도의 동작을 충실히 수행하는 몸을 드러낸다. 그러나 타 유튜브 채널이나 예능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느슨한 수행도 비난받거나 평가되기보다는 ‘똑딱인다.’는 표현으로 수용된다. 2022년 엠넷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스핀 오프 프로그램인 「똑딱이의 역습」에서 “춤은 잘 추지 못하지만 끼와 흥이 넘치는 댄스 똑딱이들의 색다른 반란”으로 내용을 소개한다. 이는 전문가 중심의 체계나 평가의 기준에서 자유롭고 민주적 참여를 허용하는 챌린지 댄스의 장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불안정한 수행에 대한 관대한 수용은 참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문화적 분위기로 이어진다. 안무에 대한 설명이나 수행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전유하는 주체들의 능동적인 수행은 때로는 철저히 때로는 느슨하게 타자의 규범을 경유하며 주도적으로 수행의 장을 형성한다. 난도가 높은 안무가 몸을 특정한 위치로 유도하는 규범적 권력이라면,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수행성은 규범과 권력에 대한 전복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 러브 다이브 챌린지

‘아무노래 챌린지’의 성공 이후 많은 가수들은 챌린지를 바이럴 마케팅의 방식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2022년 6월 틱톡이 발표한 플레이리스트 1위로 한국의 틱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곡인 「러브 다이브(LOVE DIVE)」의 춤은 숏폼의 프레임을 의식한 상반신 위주의 부드러운 동작의 사용이 주가 되며 동선이 작은 안무는 노래 가사를 직접적인 손동작으로 표현한다. 아이브의 공식 틱톡 계정에 올라온 러브 다이브의 챌린지 영상을 살펴보면 곡의 후렴구 가사에 맞춘 표정연기와 립싱크가 안무에 포함되어 제시된다.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멤버 장원영의 영상에서 춤은 뮤직비디오 촬영장으로 보이는 세트에서 스타일링을 갖춘 완벽한 외형으로 각종 화면 효과와 더불어 화려하게 선보인다(TikTok, 2022).

춤과 표정, 그리고 입모양이 모두 지정된 딱 찬 안무는 다른 표현의 여지없이 노래 가사를 표현하는 것에 집중된 수행 방식을 안내한다. 때문에 ‘러브 다이브 챌린지’는 마치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원본을 체현하고 표정을 연기하는 커버댄스의 방식으로 보인다. 이 수행의 방식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이라는 가사에서 시작되는 얼굴 표정이자 주체를 전면에 드러내는 동작으로 자신에 대한 애정을 표출한다. 얼굴을 전면에 드러내도록 한 몸의 규범인 안무는 주체를 ‘아이브 따라 하기’로 소환할 것 같지만 이는 오히려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이 된다. 중첩되는 같은 표정과 자세를 드러내는 방식은 각 주체의 고유한 수행의 방식을 드러낸다. 결국 같음을 지향할수록 드러나는 다름은 타자와 자신의 사이에서 실천되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드러내는 탈존적 수행이 된다. 또한 수행의 결과물을 공유한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 다름을 지닌 자신을 노출하여 해제되고 변화될 의지로 주체를 열어내는 수행이다.

팬데믹 시기 챌린지의 참여는 같은 해시태그의 공간에 나의 춤추는 몸을 편입시켜 물리적 거리와 언

어를 초월하고(김현희, 김현남, 2023, p. 36),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관계를 형성하여 규범을 초월한다. 일지된 동작을 함께하는 것이 주체를 향한 감정으로 이끌고 개인이 확장되는 느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Brooks, 2011, pp. 317-318), 함께하는 춤은 고립된 주체의 존재를 넘어서는 수행이 된다. 반복적 체현에서 규범을 전복시킬 가능성은 원전을 비트는 창의적 수행능력으로, 유희적 태도로, 주체를 드러내는 상호의존성의 인정에 있다. 이미 진행되는 다른 이들의 행동에 나의 몸을 참여시키는 행위는 누군가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Butler, 2020, pp. 17-18),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유희적 수행은 관계를 맺으며 규범의 사이에 여유로운 틈을 형성한다. 이는 의존적인 서로의 몸을 알고 대안의 방식으로 연대하는 즐거운 방법이며 규범을 준수하며 반복되는 수행의 힘은 규범을 소유하는 힘이자 전복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춤은 고립된 몸에 대한 규범을 극복하는 방식이지만 그 자체가 몸에 대한 규범이 되기도 한다. 슷폼의 춤이 지속적으로 인용되며 춤은 주체를 생성하는 동시에 넘어서며 타자와의 관계를 열어내는 적극적인 방식이자 자율적이고 유희적인 수행이 되어 권력과 규범을 여유로이 마주한다.

2. 포스트 팬데믹의 수행

2023년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지만, 전염병의 종식이 아닌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을 유지하는 관리 상태로의 전환임을 밝혔다. 포스트 팬데믹의 몸은 공식적인 감시의 대상에서 스스로 통제해야 하는 몸으로 전환되었다. 타인으로부터 전염되는 바이러스를 통해 주체는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접촉을 의식하는 감시를 내면화했다. 타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경험의 체화는 신뢰의 문제로, 우리의 몸이 대체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변화시켰다(Rodrigues, Body & Carel, 2023, p. 730).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같은 지점을 접촉하는 것으로도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몸의 취약성과 투과성은 체감되었다. 온전한 경계가 아닌 타자에게 열려져 존재하는 몸은 철저히 고립되어야 안전하지만, 질병으로 취약해진 몸은 언제나 타자의 도움으로 생존의 가능성을 높인다. 때문에 몸은 타인과 함께하며 제어해야 하는 느슨한 경계지점이 되고 타인과 가까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양한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하는 감각적으로 예민하고 긴장된 경험이 되었다. 그럼에도 슷폼의 춤은 여전히 주체와 타자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유희적 실천으로 유지되며 그 방식은 더욱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가. 하입보이 밈(meme)

팬데믹 이후 슷폼을 장악한 춤은 2022년 8월에 발매된 뉴진스(NewJeans)의 「Hype Boy」가 여전했다. ‘하입보이’의 춤은 팬데믹의 종식 시기에 맞물려 있어 그 전환기의 춤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헤이마마의 경우처럼 공식적인 챌린지의 제시가 아닌 뉴진스의 연습 영상과 퍼포먼스 버전의 뮤직비디오로 안무가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의 공식 틱톡 계정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영상은 BTS의 멤버인 뷔와 함께한 영상으로 팬데믹 이후에 게시되었다(TikTok, 2023). 소녀 같은 상체 동작을 보이면서도 강한 힘이 요구되는 안무는 곡의 후렴구에서 가장 크게 수행되며 좌우로 이동하는 비교적 큰 동선을 지니고 있다. 멤버 전체의 동선을 보여주는 큰 프레임에서 춤은 노래의 청량함과 함께 발랄하고 자유

로운 인상을 심어준다. 안무가 지닌 긴 동선이 개인의 솜품의 춤으로 수행되기 위해선 카메라의 움직임이 요구되는데 이를 수행하는 일부 주체들이 제자리걸음으로 동작을 변형하여 수행하는 모습들이 눈에 띈다. 제약된 실내의 공간에서 벗어나 프레임을 이동하거나 넓은 공간이 사용되는 점은 포스트 팬데믹의 시기를 드러내는 변화로 볼 수 있으며 주체가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변형하는 실천은 수행의 유연함과 주체의 자율성을 의미한다. 곡이 발표되고 일 년이 경과한 뒤에도 오랜 기간 지속된 이례적인 인기와 반복되는 실천은 수행의 변화이자 확장인 밈의 형식을 견인한다.

도킨스(Richard Dawkins)가 언급한 밈이 모방으로 전달되는 문화적 단위라면 쉬프먼(Limor Shifman)은 디지털 문화에서 밈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밈은 미시적으로 확산되지만 거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모방 수단을 통해 재생산되며, 경쟁과 선택을 통해 확산된다(Shifman, 2013, pp. 364-366). 밈은 경쟁의 결과로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밈이 선택되어 주체의 실천에서 사회적 현상으로 확산된다. 인용되어야 살아남는 밈의 관점에서 중요성은 창작자가 아닌 타자에 의해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솜품의 춤에서 밈적 전환은 안무적 규범을 익히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한 보다 자유로운 수행성으로의 전환이기도 하다.

‘하입보이 밈’은 주로 행선지를 묻는 질문에 “뉴진스의 하입보이요.”라고 대답하고 후렴구의 음악과 함께 춤을 이어나가는 형식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밈의 유행에 2023년 2월 유튜브 쇼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원의 질문에 “뉴진스의 하입보이요.”라고 대답하고 걸어가는 영상을 통해 참여했다(YouTube, 2023). 같은 해 4월 틱톡의 CEO 역시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으로 틱톡을 통해 ‘하입보이 밈’에 동참했는데(TikTok, 2023), 두 영상에서 안무는 더 이상 주체에게 필수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실천의 진화를 보여주며 두 가지 함의를 드러낸다. 첫째는 솜품의 춤이라는 수행에서 나아가 한 문장의 발화라는 인용이 용이한 기표로 압축되어 타자에게 응답하는 형태로 이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원래의 맥락을 벗어나 새로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수행의 전환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사회적 권력을 지닌 주체가 직접적인 몸의 수행을 회피하면서도 수행의 장에 자신을 위치시키기 위한 전략적 실천으로 대중의 정동에 편입하려는 이중적 수행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때의 춤이 한 주체의 독점적인 권력과 대비되어 대중적인 영역에서 다수가 어우러지는 방식에 위치한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나. #APT

2024년 10월에 발매된 로제(ROSÉ)의 「APT.」는 국내를 넘어 빌보드(billboard)와 스포티파이(Spotify)등의 순위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곡이 되었다. 로제의 틱톡 계정을 살펴보면 곡이 발매된 직후의 게시물들은 주로 ‘아파트’라는 게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보다 춤 동작에 가까운 수행은 11월 19일 게시물로 노래의 후렴구에 맞추어 양손을 위아래로 교차하는 동작에 이어 몸을 옆으로 돌려 두 팔을 몸 앞으로 구부려 당기는 단순한 동작이 추가되었다(TikTok, 2024). 2025년 1월 NBC의 「켈리 클락슨 쇼(The Kelly Clarkson Show)」에 출연해서 바이럴 댄스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응하는 로제는 두 손을 교차하는 동작의 수행 뒤에 턱을 두 손으로 받치는 동작으로 마무리한다(Youtube, 2025). 결국 남아있는 것은 게임의 규칙이나 곡에 맞추어진 안무가 아닌 양 손을 위아래로 교차하는 가벼운 하나의 동작으로 주체의 유연하고 비워진 수행은 보다 자유로운 수행을 견인한다. 틱톡과 릴스 그리고 쇼츠의 #APT 공간에는 게임과 춤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하

는 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수행 방식이 드러난다.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들과 다양한 언어로 노래 부르기의 영상 사이에 제시되지 않았던 구성된 안무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양상이 눈에 띈다.

숏폼 플랫폼에서 주로 상위에 노출되는 안무 영상은 커플로 수행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두 영상은 두 댄서 커플의 영상(TikTok, 2024)과 브루노 마스와 로제를 패러디한 영상(TikTok, 2024)이다. 이들이 수행하는 안무는 다른 틱톡 사용자 '@felixbrngs'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더 많은 '좋아요' 수로 인하여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을 의미한다. 첫째로 원본의 비워진 안무의 공간이 창의적 해석과 재구성의 자율로 채워져 누구나 안무를 구성하고 이것이 다시금 다른 주체에 의해 실천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안무의 창작 권한이 원본을 떠나 탈중심화되고 타자에 의해 수행되며 새로운 정체성과 의미를 생성하는 전복 가능성이다. 두 번째로는 안무의 창작자보다 타인의 많은 '좋아요'수를 받은 콘텐츠가 더 높은 가시성과 영향력을 확보하는 현상에서 디지털 환경 속의 수행이 알고리즘의 논리에 따라 위계화되는 권력 구조이다. 수행의 인기와 가시성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은 특정 수행을 우선시함으로써 반복을 통해 구성되는 수행의 과정에 개입하는 규범적 기제로 기능한다.

고립되고 취약해진 몸의 규율을 벗어나 함께 존재하는 감각이 더 강해진 포스트 팬데믹의 시기에 이르러 상호 주체적인 수행의 장에서는 탈규범적이고 비워진 수행의 방식이 보다 많은 대중에게 실천되었다. 숏폼의 춤은 밈으로 전환되고 다층적 실천을 보이며 그 수행 방식은 다양화되고 확장되었다.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자 몸을 비추는 프레임은 움직이고, 몸은 음악과 안무라는 규범적 틀의 빈 공간을 선호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실천의 장을 강화했다. 이러한 수행성의 확장은 주체성의 재구성을 수반한다. 몸의 상호적 유대는 다양한 실천으로 변주되어 서로를 바라보고 다양성을 수용하여 더욱 넓은 수행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러나 숏폼에 스스로를 드러내어 수행의 장에 들어서는 주체는 타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알고리즘의 규범 속에 놓이게 되고 보다 많은 가시성의 성취는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한다. 형식의 다양화가 허용되고 타인의 공감각이 수행의 목적이 되는 숏폼의 춤에서 주체는 수행의 자율성과 타자적 규범의 사이에서 흔들리며 몸의 실천을 드러낸다.

IV. 결론

몸은 생성(becoming)의 양식으로 존재하고 다르게 생성될 가능성과 함께하기에 무수한 방식으로 규범을 차지하고, 넘어서고, 수정하고 현실의 변화에 열려있다(Butler, 2015, p. 342). 인간의 실존적인 취약함을 체감시킨 팬데믹의 환경에서 주체의 몸은 자신을 드러내는 수행으로 스스로를 확장하여 새로운 정체성 구성의 장을 형성하고 몸의 규범을 털어내는 자율적 수행을 선호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숏폼의 춤은 타자의 수행을 바라보고 이를 변형하는 반복된 인용의 과정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대중의 춤수행이다. 이는 버틀러에 의해 제시된 정체성 구성을 디지털 환경에 모여든 유동적인 정체성의 형성으로 확장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적인 실천은 자율적으로 새로운 표현 형식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실천으로 정체성과 문화가 공진화하는 역동적인 수행성이다. 이 때 알고리즘은 주체를 타인의 선호로 인한 권력 관계 위에 두어 수행의 가시성과 영향력을 판단하는 규범으로 작동하며, 이는 수행이 항상 규범적 권력의 장에서 구성된다는 버틀러의 이론을 디지털 플랫폼 환경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쇼폼의 춤은 몸의 규범이 강화된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며 규범을 마주하고 자신의 몸을 열어내는 탈존적 실천이 되었다. 몸에 대한 규범이 느슨해진 포스트 팬데믹의 시기에는 안무의 규범적 권력이 떨어지자 자율적 수행력이 다채롭게 발현되었다. 쇼폼에서 춤은 편향된 권력의 반대편인 민주적인 실천에 배치되지만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타자적 규범에 노출되어있다. 규범과 권력의 사이에서 자율성을 춤추는 몸은 타자에게 스스로를 드러내고 마주함으로써 취약함을 인정하고 규범을 응시하며 원본을 벗어나는 유희적 수행력에 전복 가능성을 내포하여 정치성을 획득한다.

본 연구는 쇼폼의 춤을 수행성의 관점으로 고찰하여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 자율적 수행으로 채워질 수 있는 ‘비워진 안무’가 선호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반복적 재현을 기반으로 하는 커버댄스 형식의 댄스 챌린지와 보다 작은 단위의 동작으로 실천되어 확산되는 mimetic 춤의 양상은 쇼폼 춤의 또 다른 층위로 지속되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형식들이 공존하는 쇼폼 춤의 복합적인 지형이 보다 포괄적으로 탐구된다면 춤으로 실천되고 형성되는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감각이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Brooks, D.(2011). **소셜 애니멀**(이경식 역). 흐름. (원저출판 2011).
- Butler, J.(2015). **젠더 허물기**(조현준 역). 문학과 지성사. (원저출판 2004).
- Butler, J.(2020).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양효실 역). 창비. (원저출판 2015).
- Butler, J.(2023).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김응산 역). 창비. (원저출판 2022).
- Taylor, A.(2012). **불온한 산책자**(한상석 역). 이후. (원저출판 2009).
- 김민지, 차수정(2024). 무용에서 젠더 경계 해체 - Judith Butler의 수행성 이론을 통한 피나 바우쉬(Café Müller), 마크 모리스(Dido and Aeneas), 아크람 칸(Until the Lions)의 작품 연구 -. **한국무용연구**, 42(4), 153-181.
- 김재리(2019a). 확장된 안무의 장에서 수행적 드라마투르기. **무용역사기록학**, 54, 81-108.
- 김재리(2019b). Precarious Body: The Choreographic Documentary Glory of between Korea Military Service and Dance. **무용역사기록학**, 52, 77-94.
- 김정은, 신현군(2022). 틱톡, 숏폼 문화 속 춤의 초미학 현상: Virilio, Baudrillard의 속도의 예술을 중심으로.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6(2), 223-230.
- 김주희(2024). 보통을 관통하는 춤-랜덤 플레이 댄스를 통해 본 춤의 대중화-. **무용예술학연구**, 97(4), 17-34.
- 김현희, 김현남(2024). 팬데믹 시기 한국 대중의 춤추는 몸-「아무노래」(2020) 댄스 챌린지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95(2), 27-41.
- 변혁, 정의숙(2009). 영화 「자유부인」에 표현된 춤의 사회적 인식에 관한 고찰. **무용예술학연구**, 2(28), 59-83.
- 조주영(2021). 신체적 수행성과 정치적인 것에 대한 상상 - 버틀러의 아렌트 독해를 중심으로 -. **시대와 철학**, 32(2), 147-188.
- 조현준(2017). 나에서 우리로, 젠더에서 인간으로: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과 『젠더 허물기』 비교 연구. **여성문학연구**, 40, 239-266.
- 양은정(2013). 춤추는 몸의 통제와 탈주: 1960-70년대 한국의 춤 양상에 관한 사회문화적 재조명.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0(2), 115-136.
- 이지선(2006). 디지털 예술과 춤 테크놀로지. **무용예술학연구**, 19, 1--93.
- 한석진(2017). 디지털 퍼포먼스<모탈 엔진(Mortal Engine)>(2008)에서의 포스트휴먼 몸에 대한 연구: 포스트 메트로-폰티 철학 관점에 근거하여. **대한무용학회**, 75(3), 142-162.
- 황희정(2013). 댄스클럽 기사를 통해 본 한국의 대중춤. **우리춤과 과학기술**, 23, 123-144.
- Butler, J.(1988). Performative Acts and Gender Constitution: An Essay in Phenomenology and Feminist Theory. **Theatre Journal**, 40(4), 519-531.
- Butler, J.(1993). Critically Queer. **GLQ**, 1, 17-32.
- Li, Y., Guan, M., Hammond, P. & Berrey, L. E.(2021). Communicating COVID-19 information on TikTok: a content analysis of TikTok videos from official accounts featured in the COVID-19 information hub. **Health Education Research**, 36(3), 261-271.
- Rodrigues, J., Body, K., & Carel, H.(2023). The pandemic body: the lived body during the COVID-19

- pandemic. *Medical Humanities*, 49(4), 725-734.
- Shifman, L.(2013). Memes in a Digital World:Reconciling with a Conceptual Troublemaker. *Journal of Comput-Mediated Communication*, 18, 362-377.
- 전형서(2024. 12. 01). “짧어진 집회 문화... ‘우리 사회 바꾼다’”.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 2024. 12. 23>.
- 조혜진(2021. 11. 01). “노제 ‘헤이 마마’, 내가 봤을 때 멋있는 동작으로”. *엑스포츠뉴스*. <<https://www.xportsnews.com/article/1493438>, 2025. 02. 03>.
- felixbrngs(2024. 10. 22). “아파트 댄스 창작 안무 영상”. *TikTok*. <<https://www.tiktok.com/@felixbrngs/video/7428584834257177872>, 2025. 04. 07>.
- ive.official(2022. 04. 10). “LOVE DIVE 챌린지.” *TikTok*. <<https://www.tiktok.com/@ive.official/video/7085322864978709762>, 2025. 01. 29>.
- jamesandjasmin(2024. 11. 18). “아파트 댄스 커플 영상”. *TikTok*. <<https://www.tiktok.com/@jamesandjasmin/video/7438266634013265185>, 2025. 04. 07>.
- johnnymatosoficial(2024. 12. 01). “아파트 댄스 패러디 영상”. *TikTok*. <<https://www.tiktok.com/@johnnymatosoficial/video/7449003740469693701>, 2025. 04. 07>.
- kozico0914(2020. 01. 13). “지코 아무노래 댄스 챌린지”. *TikTok*. <<https://www.tiktok.com/@kozico0914/video/6780701284392504578>, 2025. 01. 03>.
- kozico0914(2020. 01. 31). “아무노래 챌린지 감사 영상”. *TikTok*. <<https://www.tiktok.com/@kozico0914/video/6788060724821314817>, 2025. 01. 03>.
- Mnet(2021. 08. 31). “스트릿 우먼 파이터 2화”. *CJ ENM(최정남)*. <<https://www.tving.com/contents/P001504143>, 2025. 01. 08>.
- newjeans_official(2023. 08. 22). “‘hype boy’ 영상”. *TikTok*. <https://www.tiktok.com/@newjeans_official/video/7269960095524588818, 2025. 02. 04>.
- osehonTV(2023. 02. 01). “오세훈 시장님! 지금 어디가요??”. *YouTube*. <<https://www.youtube.com/shorts/PtodkfBqOoE>, 2025. 02. 10>.
- roses_are_rosie(2024. 11. 19). “로제의 아파트 댄스”. *TikTok*. <https://www.tiktok.com/@roses_are_rosie/video/7438688453358898439, 2025. 04. 02>.
- tiktok_kr(2023. 04. 19). “틱톡 CEO가 알려주는 흥대입구 가는 법”. *TikTok*. <https://www.tiktok.com/@tiktok_kr/video/7223620928024874242, 2025. 02. 10>.
- The Kelly Clarkson Show(2025. 01. 19). “Teaching kellyclarkson the APT dance!”. *YouTube*. <<https://youtube.com/shorts/9JLhQp8pYHM>, 2025. 04. 03>.
- ZICO(2020. 02. 03). “지코한테 직접 배우는 아무노래 챌린지”. *YouTube*. <<https://youtu.be/uSaITfy1A0w>, 2025. 01. 03>.

논문투고일 2025. 05. 15.
 심사일 2025. 05. 21.
 심사완료일 2025. 06. 03.

**The Politics of Short-form Dance,
Autonomy between Norms and Power**
– Focusing on Judith Butler’s Concept of Performativity –

Kim, Hyun-hee

Ph.D. Candidat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mbodied meanings present in the public’s performance of short-form dance. Centered on Judith Butler’s concept of performativity, the study analyzes five representative cases from each year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Short-form dance functions as an alternative bodily performance that resonates with the shared condition of existential vulnerability, and as a ec-static practice through which the self is expanded. Within the loose structures of power, the public tends to prefer autonomous performance, and short-form dance co-evolves as an interactive yet distinctive mode of expression. This bodily practice enacts autonomy within the interstices of norms and power, acquiring political agency through a playful performativity that reveals the self to external norms and confronts them, thereby engaging with vulnerability.

Keywords: Dance(춤), Short-form(숏폼), K-pop(케이팝), Dance challenge(댄스 챌린지), Performativity(수행성)